

“조규성 기대 말라”는 홍명보, 11월 A매치 최전방엔 누가?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조규성(27·미트윌란)의 경기 출전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가운데,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과 오현규(24·헝크)의 출격 가능성이 커졌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11월 A매치 첫 경기를 갖는다.

이후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나와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일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직전년의 마지막 A매치인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이번 2연전 결과가 내달 6일 진행되는 월드컵 조 추첨에서 포트2 수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중요도는 배가 됐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10일 첫 소집 당시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포트2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FIFA 랭킹을 위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 축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가 무너졌다. 이번 11월 A매치 초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핵심’ 황인범(29·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 낙마했다.

설상가상 황인범의 대체자인 백승호(28·버밍엄)도 다쳐 제외됐다.

또 2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동경(28·울산 HD)마저 갈비뼈 골절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미드필더 서민우(27·강원FC)와 2선 자원 배준호(22·스토크시티)가 대체 발탁됐지만, 처음에 소집한 선수들을 연달아 잃은 건 홍명보 감독에게 악재다.

자연스레 공격적인 활약이 중요해졌다. 최정영에 아닌 만큼, 전방으로 공급되는 공의 방식과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찾아오는 기회를 반드시 골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오는 14일 대전에서 볼리비아와 첫 경기 “감각 완전하지 않다” 평가 받은 조규성 ‘주장’ 손흥민·‘연속골’ 오현규 활용 예정

이번 명단에서 공격수로 분류된 선수는 손흥민, 오현규 그리고 조규성이다.

경우에 따라 황희찬(29·울버햄튼)을 최전방으로 쓸 수 있지만 일단 명단에서는 미드필더로 분류됐다.

11월 A매치에 이름을 올린 자원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조규성이다.

조규성은 이번 공격진 중 가장 큰 신장인 189cm를 바탕으로 재공권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선수다.

더욱이 부상 이후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아 홍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단 동기부여까지 확실하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 두 골을 기록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실력을 인정받아 2023~2024시즌 덴마크 리그로 진출했고, 공식전 13골4도움으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2024년 5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생기면서 2024~2025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도 멀어졌지만, 지난 8월 복귀전을 치렀다.

9월에는 1년4개월 만에 골맛까지 보고 상승세를 이어 이번 대표팀에도 승선할 수 있었다.

다만 홍 감독은 “조규성은 피지컬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갖췄다. 다만 경기 감각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표팀이 기운을 쥐서 힘을 받고 소속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발탁했다. 이번엔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선수한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으로) 우울했던 시간을 벗어나 좋은 컨디션을 되찾기 위한 단계다. 어느 정도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규성과 관련된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 감독이 공개적으로 조규성의 출전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만큼, 이번 2경기는 손흥민과 오현규가 공격수로 활용될 전망이다. /뉴시스



‘MLB 복귀 관심’ 네일, KIA 떠날까 남을까 지난해 평균자책점 1위… 올해도 2.25로 건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 통합 우승 주역이었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올해 건재한 기량을 과시하며 ‘1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네일이 내년에도 KIA 유니폼을 입을지는 미지수다. 네일의 메이저리그(MLB)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KBO리그에 입성한 네일은 26경기에 등판해 149⅓이닝을 투구하며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으로 맹활약하며 팀을 정규시즌 1위로 이끌었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네일은 가장 큰 무대인 한국시리즈(KS)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2경기에서 10⅓이닝을 던지며 1승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 팀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시즌 종료 후 KIA와 총액 180만 달러(약 26억원)에 재계약한 네일은 올해 8승(4패)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지 못했으나 평균자책점을 2.25로 더 낮췄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닝인 164⅓이닝을 소화했다.

시즌 후 KIA는 검증된 에이스인 네일을 재계약 대상으로 분류했다. 2025시즌 8위로 추락한 KIA는 내년 반등을 위해 네일을 붙잡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다만 변수는 네일의 빅리그 복귀 여부다. KIA 관계자는 “네일이 MLB 복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년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준 네일과 재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했다. 네일은 빅리그 생활을 길게 해보진 못했지만, 마운드를 밟아본 경험은 있다.

2022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MLB에 데뷔한 네일은 2시즌 동안 통산 17경기 모두 불펜 투수로 출장해 1홀드 평균자책점 7.40을 기록했다.

2023시즌에는 10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8.80의 성적을 남겼다. 만약 네일이 빅리그로 돌아가게 되면, 3년 만에 꿈의 무대를 누리게 된다.

올해 네일과 함께 KIA에서 된 외국인 투수 아담 윌러와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잔류 여부도 불투명하다.

KIA는 두 선수와의 재계약에 대해 고심 중이다.

올해는 2025시즌에 26경기에 등판해 149이닝을 투구하며 11승 7패 평균자책점 3.62의 호성적을 거뒀다. 그는 시즌 도중 재계약 의사를 드러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6월 말에 당한 어깨 부상으로 한 달 넘게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후반기 평균자책점이 4.67로 다소 높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위즈덤은 올해 정규시즌에 119경기 출전해 35홈런 85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856으로 뛰어난 공격 생산력을 자랑했지만, 타율이 0.236에 그쳤다.

더구나 득점권 타율마저 0.207에 머무르며 승부처에서 침묵하는 장면이 잦았다. /뉴시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정식 종목인 야구 일정이 확정됐다.

12일(현지 시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2028년 LA 올림픽 야구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7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제외됐던 야구는 2021년 열린 2020 도쿄 대회에서 부활했으나 2024 파리 대회에서 다시 외면 받았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발표한 LA 대회 세부 종목에 야구가 포함되면

2028 LA 올림픽 야구 일정 확정… 현지 시간 7월 13~19일 개최

서 3년 뒤 열리는 올림픽에서 다시 경기가 열리게 됐다. LA 올림픽 야구는 개최식이 예정된 7월14일보다 하루 일찍 시작한다. 개최식이 열리는 7월14일에는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LA 올림픽에는 총 6개 팀이 참가해 3개 팀씩 두 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조별리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펼쳐진다.

각 조 1위가 4강에 직행하고, 2위와 3위는 각각 다른 조 3위, 2위와 준준결승에서 겨룬다. 준준결승전 승리 팀은 4강에 진출해 1위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조별리그에서 2승을 따낸 뒤 준결승과 결승에서도 연달아 승리를 수확하면 단 4경기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

개최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쿠바, 멕시코 등이 출전권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4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1위를 수성할 가운데 2위 대만, 3위 미국이 뒤를 이었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과 맞붙는 호주와 체코는 각각 11위, 15위에 자리했다. /뉴시스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